

D-MAP 동기부여를 위한 함께하는 합창대회

신입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감동의 하모니



▶GSI외국인 유학생들이 곡에 맞는 안무와 함께 합창을 하고 있다.

2018학번 새내기들이 하나 되어 감동의 물결을 선보였다.

지난 달 27일 동서대학교 민석체육관에서 신입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함께하는 합창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신입생들 간 화합과 협동심 고양, 동서대생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등을 위해 동서대학교가 기획, 추진했다.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50여명의 교내 직원과 서포터즈(정의인재육성처 서포터즈,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서포터즈)들이 무대 준비를 도왔다. 이 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리허설이 진행됐고 본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했다.

이번 합창대회에는 외국어계열(161명), 디자인대학(232명), 보건의료계열(280명), GSI 외국인학생, 관광학부(166명),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170명), 화학공학부(131명), 글로벌경영학부(215명), 컴퓨터공학부(197명), 국제통상물류학부/DIS(153명), 임권택영화영상예술학부(100명),

레포트과학부(129명), 디지털콘텐츠학부(144명), 사회복지학부/동아시아학과/경찰행정학과(182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123명), 건축토목공학부(163명) 등 총 16개 팀이 참여했다.

올 해 합창대회에서는 동서대를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 팀을 이루어 참가했다. 이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다함께 부르며 관람하는 모든 학생들의 환호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각 학부들은 합창뿐만이 아니라 선곡에 맞는 옷과 안무를 준비하여 단합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 날 2018학번 새내기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무대에 올라 '10월의 멋진 날', '좋은 날', '아름다운 나라', 'Love is an open door/상어가죽', '카레', '붉은노을', '사랑을 했다' 등의 노래를 선사했다.

건축토목공학부의 무대를 끝으로 학생들의 합창대회가 끝나고 초청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중 학생들은 무대

로 나와 흥을 더했으며 3시간이 넘었던 진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

이번 대회의 1등 D-MAP상(대상)은 화학공학부가 받았다. 2등 최우수상은 레포트과학부가 받았으며 3등 우수상은 건축토목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공동 수상, Re-action상은 외국어계열, 특별상은 GSI 외국인 유학생들이 차지했다. 1등 D-MAP상(대상)은 장제국 총장이 무대로 나와 트로피와 상장을 대표 학생에게 직접 전달했다.

합창은 노래 한곡을 다함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큰 꿈을 키워가는 하나의 동서인으로 몸치게 했다. 신입생들은 약 2달간 틈틈이 연습을 해 합창대회에 참여했으며, 연습과정에서 화합과 협력, 팀워크를 배우고 동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합창의 주인공인 새내기들은 물론 지켜본 관객들도 화합·협동·조화의 힘을 실감

하게 했다.

작년부터 기존 재학생들과는 달리 신입생들은 입학 후 색다른 절차를 밟았다. 동서대학교는 2017학년부터 신입생 동기 부여를 위한 'D-MAP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주간 진행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 해는 2달이라는 긴 준비과정이 있었다.

D-MAP은 진단(Diagnosis), 동기부여(Motivation), 애정 및 열정(Affection), 계획(Plan)의 머리글자를 합성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창의능력, 도전정신, 공동체 의식, 공감능력, 감수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학부별 오리엔테이션, 수강 과목 소개, 선·후배 만남 등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행에서 탈피해 차분히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한 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총학생회 사랑의 도시락 전달

매주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도와



총학생회가 봄과 함께 주례동을 따뜻하게 꽃피우고 있다.

제 26대 모두가 총학생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모두가 총학생회는 교내 식당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주례동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 홀로 사는 가정을 추천받아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한다.

'사랑의 도시락'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서대학교 학생 이름으로 시행하는 총학생회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매년마다 동서대학교 총학생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의료용 해소 등 복지 안정망 구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권민철 제 26대 모두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임기가 시작되고 도시락 배달을 시작하진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배달을 진행하며, 마냥 웃음으로 어르신들을 뵈 수 없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화 되면서 독거노인 문제는 어디서든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노인문제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노인 분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대 총학생회에서도 지금까지 작은 노력이지만 지속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송현민 제 26대 모두가 부총학생회장]

벚꽃이 피고 옷이 얇아지는 걸 보니 따뜻한 봄이 왔나 봅니다.

선배 총학생회에서 해오던 봉사활동을 이어받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계기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깨끗한 환경과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때문입니다.

항상 인사를 때마다 "이쁜 아들, 멋진 아들" 해주시는데,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 진짜 학교의 멋진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찰나에 저희 학교가 위치한 사상구 지역에 힘든 어머니 아버님들이 있다고 전해 들어서 꼭 감사한 마음을 담아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희가 공부할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걱정을 하시는데, 휴대폰 보고 누워서 쉬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며 그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돕고 지내면 좀 더 따뜻한 동서대와 사상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동서대 2018 학생신앙강좌 개최

자존감 회복하여 성실히 살아가라



▶주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이은성 목사.

지난 달 3일부터 4일 이틀 동안 신학협력관 대강당(복음화센터)에서 학생 신앙강좌(동서대학교 Ace+사업단 주관, 동서대학교 교목실 주최)가 개최됐다.

이번 신앙강좌는 이은성 목사(세계로병원 원목실장)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강의 시작과 동시에 기독교양리와 체플 찬양팀(VIC)이 찬양과 봉사에 하나 되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이 끝난 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1~3학년 재학생 총 7000여명이 이은

성 목사의 말씀을 들었다.

[이은성 목사 말씀 중]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에 대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의 단점을 기억하는 것이 일생을 건강하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비결,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의 매력,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대에 어떤 선교단체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가장 많은 남성, 여성 청년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얼굴이 특이하게 생긴 여자 청년이 혼란을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청년은 얼굴이 너무 크고 눈이 크고 볼출이 되어있어서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뒤틀러 있었습니

다. 하지만 이 청년은 처음 보는 남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 뒤에 혼란을 받을 때 사람이 너무 밝고 당당하게 감정 표현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괴해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은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아줬다는 생각이 이유 없이 들어서 한 번도 핀 적 없는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성경의 첫 장을 보고는 땅지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청년은 성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게 되면서 자존감을 찾게 되어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한 뼘 한 뼘 정성껏 소중히 만드셨습니다. ...[중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자존감을 회복하여 성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의 강의를 마치고 봉사 학생들이 신앙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줬다. 조사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71.7%가 좋았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믿는다'가 15%, '오늘 믿기로 했다'는 4.2%, '다시 믿기로 했다'가 2.4%로 응답했으며 6.6%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는 새롭게 믿기로 하여 동서대 전체학생 중 크리스찬 비율은 21%에 이르렀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유소년 풋살 대회 개최



동서대학교 레저스포츠 전공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대회를 진행한다.

레저스포츠 전공이 스포츠이벤트론(캡스톤디자인)수업을 통하여 '제1회 우리 동네 풋살왕' 및 'DFC(Dongseo Futsal Championship)'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부산 전 지역의 초등학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학년 8팀, 고학년 8팀으로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어 경기를 진행한다.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동서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체험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동서대학교가 주최하며 동서대학교 레저스포츠전공, 이벤트 컨벤션전공이 주관한다. 풋살 경기는 5대 5로 팀을 나누어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에 우승한 팀에게는 트로피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참가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는 티셔츠가 제공된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훈련을 통해 신체 협응성 향상과 개인 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대회는 자신의 잠재적 신체적성과 운동능력을 최대한 개발, 신체, 정신, 인지 사회성 발달 즉 전인적인 성장 발달, 건강 체력 향상과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 고취, 유소년 체육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협동심, 전 화력, 사회성을 길러주고 대회 준비과정 중 꾸준한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칼로리 소모가 높은 운동으로 유아 비만에 도움이 되며 풋살 대회를 통한 전 화력 고취, 자기개발의 기회, 스트레스 해소, 유소년전선 전구들과의 추억 쌓기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가비는 팀당 5,000원이며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이 제공된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2018 Water fighter체육대회

레포트과학부 종합 우승, 경찰행정학과 종합 준우승을 거머쥐다



▶2018 체육대회 모두가 Water fighter.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화학공학부의 줄다리기 대결.



▶응원하는 경영학부 학생들.



▶씨름판위에서의 명승부.



▶각 학부별로 각양각색의 재미를 즐기는 학생들.



▶운동장 트랙에서 펼쳐진 발아구 명승부.

지난 4월의 끝 무렵인 26일과 27일, 동서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면서 ‘2018년도 동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중간고사(2018. 4. 16. ~ 2018. 4. 21)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친 기색의 얼굴을 한 교내 학생들이 캠퍼스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인다. 이런 다운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총학생회(모두가)에서 동서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중간고사의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지친 몸과 마음을 한 번에 풀어줄 2018년도 동서 체육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2018년도 동서 체육대회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총 2일간 진행됐다. 총학생회(모두가)에서 정한 동서 체육대회의 공식 명칭은 ‘Water fighter’이며, 부제는 ‘물난리’이다. 지난 22일(월)부터 24일(화)까지 계속되는 비 소식에 체육대회 당일에도 비가 계속 올까 염려했었으나 다행히 26일(목) 체육대회인 당일에는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뜨거운 햇빛이 비쳤다. 화창한 날씨에 체육대회의 열기를 더해 학생들은 더욱 신나는 분위기를 띄웠다.

위기를 띄웠다.

행사 중 일부인 워터 페스티벌 시간에는 DJ 공연과 댄스동아리(블랙) 공연이 있었고 모든 경기가 끝난 시간에는 경품추첨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동서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2일간 진행된 2018 Water fighter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각 학과 학생들은 각자가 정한 컨셉의 맞춤형을 입고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경기를 지켜봤다. 2018 동서 체육대회가 진행되면 필수품 그 열기가 더해지며, 뜨거운 햇빛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캠퍼스 내의 젊은 열정들은 식을 줄 몰랐다.

이번 운동회는 종합운동장과 운동장 사이드 부분, 동서대 민석 스포츠센터 이렇게 세 곳에서 경기가 펼쳐졌다. 작년과 같이 동서대학교 체육계의 대표적인 학부 ‘레포트과학부’가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2018 체육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더불어 ‘경찰행정학과’는 종합 준우승에 올랐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보건의료계열, 컴퓨터공학, 국제, 디지털

콘텐츠, 사회복지학부 총 6개의 학부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체육대회 첫 날인 26일에는 축구·축구·씨름·피구·농구·발아구·릴레이계주·줄다리기 등 8개 종목들의 예선경기와 결승경기가 교내에서 진행됐다. 축구·발아구·줄다리기 결승 경기는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진행됐고 씨름·피구 결승 경기는 운동장 사이드에서, 농구 결승 경기는 민석 스포츠센터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12시 반에서 13시(약 30분)사이의 점심시간이 끝난 후 13시부터는 약 80분간 ‘물난리(Water fighter)’라는 명칭의 물놀이 이벤트가 시작됐다. 물난리 이벤트는 학교 운동장 내로 물탱크가 와서 학생들이 마음껏 물 장난치며 물놀이를 하는 이벤트이다. 학생들은 너무나 갖 것 없이 함성을 지르며 물총, 물 풍선, 페트병 등에 물을 가득 채워 시원한 물놀이를 즐겼다. 뜨거운 햇볕 아래 고조된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물놀이가 더운 학생들에게 시원한 재미를 더했다.

마지막 날(27일)에는 26일에 이어 선선

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빛이 비추는 날씨가 계속되며 동서대 학생들은 D-map 합창대회를 즐겼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벌써 하루가 지났다. 체육대회가 너무 일찍 끝나버려 아쉽지만, 이 여운을 남은 D-map 합창대회에도 쏟아 부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전했다.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본 체육대회들 중에 끝날 때 이번 체육대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학우 분들이 제일 많았다. 준비한 만큼 재밌게 잘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학생들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땀 흘려 수많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솔하고 치열한 경기 속 심판을 행했던 총학생회, ‘모두가’를 향하여 박수를 보낸다. 큰 안전 사고없이 체육대회를 즐긴 많은 동서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내년에도 열릴 2019년도의 동서 체육대회도 벌써부터 기대된다.

신혜정 기자, 지은서 수습기자
hyejung4947@gmail.com

동서대 체육대회와 ACE+사업

에이스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



▶종합운동장 입구 쪽 홍보활동.

동서대 ‘2018 Water fighter체육대회’가 진행된 지난 26일(목)에 10시부터 17시까지 종합운동장 입구 쪽에서는 에이스사업 학생 서포터즈단의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ACE+사업은 특화된 인재양성을 위한 어셈블리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하며 셀프브랜드 개발교육, 달란트 프로젝트, 어셈블리형 교육, 초연결 캠퍼스 어셈블리, 온라인 교육(MOOC 지원체제 구축), 학사운영 제도 혁신의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다.

체육대회를 즐기는 학생들은 에이스사업 홍보 부스에서 페이스북(SNS)으로 ‘동서대학교 ACE+사업’을 검색해 좋아요를 누르면 게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해당 부스 관계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이기면 1등부터 5등까지 나눠진 광 않는 경품 추천권을 뽑을 수 있

는 행사이다. 경품으로 다양한 선물(1등-나이크 티셔츠, 2등-나이크 모자, 3등-휴대용 선풍기, 4등-보조 배터리, 5등-물풍선)을 준비했다.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은 “체육대회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선풍기, 모자, 물풍선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서 좋았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ACE+사업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다”며 말했다.

당일 서포터즈 홍보단, 김예지 학생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이 에이스 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에 관심과 참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26일 진행된 홍보 이벤트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동서대학교 ACE+사업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제 19회 전주국제영화제 본선진출

〈낮선 자들의 땅〉장편영화, 본선진출하다



▶영화, 낮선 자들의 땅.

제 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영화과 4학년 오원재 학생이 연출한 장편영화인 <낮선 자들의 땅>이 세 경쟁부문(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에서 ‘한국경쟁’ 본선으로 올라갔다. 오원재 학생은 단편 <메드보이>(2004), <나생관>(2014), <사냥>(2015)을 연출했으며 이번 본선 진출한 <낮선 자들의 땅>은 첫 장편영화이다.

<낮선 자들의 땅>은 15년 전 가족을 위해 친구 나성의 살인죄를 뒤집어 쓴 주인공 정철이 모범수로 복역하던 도중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귀휴를 허락받게 되는데, 원전사고로 변해버린 마을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철은 사고지역을 벗어나려는 가족을 위해 또 다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시민은 고리 원전이 가까이 있어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과 안고 있었고 원전 사고가 난다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과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담아 기획의도도 표현한 87분의 장편영화 작품이다.

이번 2018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낮선 자들의 땅>을 포함한 10편의 작품들이 공식 경쟁 부문의 하나인 ‘한국경쟁’ 본선 진출 작품으로 뽑혔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경쟁’ 부문은 40분 이상의 상영시간을 가진 중편 혹은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한 주 경쟁 부문이며, 올해에는 이 부문에서 <귀여운 여인>, <나와 봄날의 약속>, <내가 사는 세상>, <환강에게>, <출입>, <성혜의 나라>, <비행> 등 총 88편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영화와 손연석 교수는 “대학당국의 예산과 장비 지원이 있었고 영화를 제작하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에 <낮선 자들의 땅> 같은 훌륭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영화과 4학년

오원재 학생은 단편 <사냥> 등 여러 편의 영화를 연출한, 촉망받는 영화인”이라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김영진 수석 프로그램 레머는 “올해 한국경쟁에 출품한 작품들은 작년에 비해 극영화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고 극영화 부문에서는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도 많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여 전주에서 공 경쟁이 모범수로 복역하던 도중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귀휴를 허락받게 되는데, 원전사고로 변해버린 마을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철은 사고지역을 벗어나려는 가족을 위해 또 다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시민은 고리 원전이 가까이 있어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과 안고 있었고 원전 사고가 난다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과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담아 기획의도도 표현한 87분의 장편영화 작품이다.

영화제의 주최 지역인 전주에서는 ‘예술을 통한 수익의 추구’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영화산업의 경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향의 다양성’, ‘새로운 영화 체험’이라는 가치를 내걸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미래 영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재능의 발굴, 창의적인 실험과 독립정신을 지지하며, 전 세계 영화작가들이 만나고 연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2018년 5월 3일(목)부터 5월 12일(토)까지 10일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되며 개막작으로 정희진의 ‘아기니쿠 드래곤’을 상영하고 폐막작으로는 웨스 앤더슨의 ‘개들의 섬’이 상영된다. 한국경쟁 부문의 심사는 올리비아 시셀 위원과 정지우 위원, 김상경 위원이 하게 된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시원하게 즐겨라, Water fighter

여기저기 ‘물난리’, DJ 공연, 블랙 공연 이어져



▶플라밍고와 함께 열린 ‘물난리’ 워터 페스티벌.



▶물난리 풍경.

지난 4월 26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육대회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펼쳐졌다. 총학생회(모두가)에서는 물놀이의 공식 명칭을 ‘Water fighter’라고 정했다. 또한 부제는 ‘물난리’라고 정했다. 더운 체육대회에서의 열기를 식혀줄 물놀이는 동서대학교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이다. 체육대회의 초반부터 물총을 들고 물싸움에 시동을 건 몇몇 학생들이 보이며 체육대회의 고조된 분위기를 예고했다. 종합운동장 위에는 물난리 행사를 위한 분홍색 플라밍고 튜브가 곳곳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물총과 물 풍선이 운동장 사이드에 준비돼있었다.

한 동서대 신입생 학생은 “매년 학교에서 물놀이를 한다고 들었다. 올해 대학에 처음 들어와 처음 경험하는 체육대회와 물놀이인데 너무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동서대 재학생 학생은 “체육대회를 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가 물놀이이다. 처음에는 물에 젖는 것이 싫어 우물쭈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감하게 물총을 쏘면서 놀다보면 이벤트가 끝난 후에는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며 웃으며 말했다. Water fighter 시간 중간에는 Water festival

이 행해졌는데 이 시간에는 DJ 공연, 블랙 공연이 진행됐다. 교내에 행사가 있을 시에 늘 빠지지 않았던 교내 동아리 블랙의 공연은 이번에도 행사의 분위기를 더 고조시켰다. 학생들은 물놀이를 즐기는 와중에 DJ와 블랙이 선곡한 음악 또한 즐겼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영상문화전공 4학년 조세영 학생은 “4학년 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과 모든 학부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던 물놀이 행사가었습니다. 사실 4학년이면 체면 정건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고학년들도 청소년으로 돌아간 마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 다. 4년 동안 체육대회에 참여했던 학생으로서 올해는 좀 더 재밌고 신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체육대회에 물놀이 행사는 동서대 학생들에게 만족감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 있을 체육대회의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사진출처 : 페이스북 총학생회 페이지
신혜정 기자, 지은서 수습기자
hyejung4947@gmail.com

5월 가정의 달 유래를 알아보자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근로자이며, 스승이시다

매년 5월만 되면 유독 휴일이 많다. 가정의 달이기에 국가에서 제정한 공휴일이 많기 때문이다. 아버지 날, 스승의 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그저 휴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휴일이 아니라면 일상처럼 넘기는 날이 많다. 마치 크리스마스 와 같은 느낌이다. 나의 옆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근로자이며, 어린이이며, 누군가의 스승이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에게 특별한 5월 가정의 달을 제대로 알고 진심으로 기념해야하지 않을까.



아버지날

올해는 45번째 아버지날을 맞이한다.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 챙기는 국가도 많지만, 한국은 1956년 어머니날로 시작하여 1973년 아버지날로 이름을 바꾸며 부모 모두에게 감사하는 날로 지정하게 됐다.

미국의 '어머니날'에서 출발한 세계 아버지날은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숭고한 정신에서 기원했다. 그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어머니날을 지정하게 되었다. 미국의 어머니날의 기원은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1868년, 앤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들의 우정을 날'을 만

들었다. 내전의 상처는 깊었고, 그 상처의 형태로 전쟁에서 자식이 다쳤거나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모임이 이어졌다.

어머니날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때는 자비스의 사망이 계기가 됐다. 자비스의 딸 예나는 1905년 5월 9일 타인의 상처를 보듬으려 노력했던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웨스트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모임이 각지로 퍼져나가자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사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노고를 기리는 날을 정하겠다고 선언했다.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머니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꽃, 카네이션의 유래도 있다. 2000년 전 그리스 문학 속에는 '다이안서스'라는 꽃 이름이 나온다. 다이안서스는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카네이션의 학명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 신의 제사에 이 꽃을 사용하면서 '제우스의 꽃'이라는 의미로 부르기도 했고, 여신 아르테미스가 자신을 놀라게 한 목동의 눈을 찔렀다가 훗날 후회하며 그 눈을 카네이션으로 바꿔주었다는 신화로부터 아르테미스, 즉 '디아나의 꽃'이라는 뜻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학자들은 이처럼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다이안서스를 '신의 꽃'이라 여기고 신성시하며 주로 대관식에 사용했기 때문에 카네이션이라는 이름은 대관식이나 화환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카네이션이 아버비를 의미하는 꽃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닌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은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닌 학생들 자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청소년적십자인 총남 강경여고 RCY 단원은 1958년부터 현직 선생님과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하신 선생님 위문을 하며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총남협의회에서 이 활동을 의미 있게 여겨 9월 21일을 총남도내 '은사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가지기로 실시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은사의 날'을 5월 24일로 정하여 기념할 것에 합의하였다.

공식적인 스승의 날 유래는, 이후 1962

년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변경하면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날짜 또한 5월 26일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이때부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기념일이 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73년 정부의 규정에 의해 폐지되기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춘천 등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위기로 있었지만, 9년만인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며 부활하게 된다.

변위로 스승의 날 유래는 5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선생님을 높여 부르는 '스승'이란 말의 어원은 옛 중을 높여 부르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고려 때에는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조선 중엽 때 문헌인 해동잡록에서는 당시 선비들이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에서 벼슬이 높거나 간 간에 서로 선생이라는 호칭을 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김영란 법 발발로 인하여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 드리는 것도 꺼려지고 있다. 1000원짜리 캔 커피와 2000원

짜리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도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스승의 날 뿐 아니라 그 어떤 때에도, 작은 과자 하나도 주어서는 안 된다. 교사와 모든 학생의 관계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어느 교사와 학생이 특별한 관계라고 의심받거나 의심을 줄 행위는 일절 금지해야하는 추세이다. 학교에서는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등의 스승의 날 행사 역시 축소되었지만,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까지는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자기 생일만큼 기다리는 날이다. 우리 어린이날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러나 겨레의 희망을 품고 탄생했다. 어린이날 첫 행사가 열렸던 1923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온 민족이 굶주리고 짓눌리며 신음하던 무렵이었다. 이런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희망은 나라 독립이었다. 당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부르는 말조차 없었다. 그때는 아이들을 자

식 노 혹은 애 녀석, 애새끼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선각자들이 앞날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서 샅샅이 같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잘 길러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되찾게 하려는 꿈을 키운 것이다. 1923년 5월 1일, 첫 어린이날을 알리는 선전 종이에 적힌 글귀가 그것을 증명했다. '오늘은 어린이날, 희망의 새 명절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소과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로 진장섭, 조재호, 윤극영, 손진태, 이현구, 마해송 씨 등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색동회가 제정했다. 이들은 우리 동요, 동화, 동극을 짓고, 이를 부르고 읽고 관람하게 하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얼을 심어 주려는 뜻에서 펼친 어린이 문화 운동에 앞장섰다. 방정환 선생은 이보다 앞서 3월 20일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를 창간했다. 그로부터 어린이를 알보는 아이 대신해서 '어린이'라는 높임의 뜻이 담긴 단어를

근로자의 날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은 'MAY DAY',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 19세기 말, 하루 8시간 일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해달라며 휴과 기쁨이 묻은 손에 삽과 망치를 들고 간절하게 외쳤던 미국의 노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생겨난 소중한 날이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지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휴무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근로자를 위한 날이 지정된 건 1958년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 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진 것에 이어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고, 이후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되어 그 창립일인 3월10일이 바로 노동절로 정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3년에 명칭이 '근로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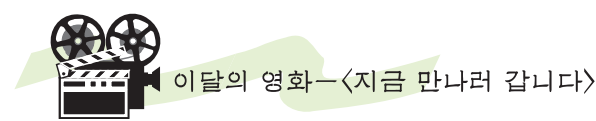
날'로 바뀌었고,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해서 따로 기념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노동단체들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됐다. 노동단체들은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렇다저 바뀐 것에 대하여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한다. 그 결과,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5월 1일에는 근로자들이 한

데 모여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적은 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와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그 의미를 새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날이 되면 각 시·도 및 기업·노동조합별로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정부 주최 기념식을 통해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등 노사문화 창출에 기여한 근로자·노조간부·사용자 등에게 훈장·포장·표창 등이 수여되기도 한다.

이현희 기자
hyeoneneya@gmail.com



동화 같은 이야기



- 영화 제목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영화 감독 : 이정훈

이 영화의 도입부분은 동화로 시작되는데, 구름나라의 엄마펄은 매일 아기펄킨을 내려다보며 운다.

장마가 시작이 되고, 엄마펄킨은 아기펄킨을 보기 위해 기차를 타고 아기펄킨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행복 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장마가 끝나갈 무렵, 엄마펄킨은 다시 구름나라로 올라가야만 했다. 엄마펄킨이 다시 구름나라로 올라간 뒤, 여전히 아기펄킨을 내려다보긴 하지만 울지

는 않는다. 이 동화의 내용은 영화 전체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엔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빠와 아들 둘 만이 지내 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장마가 시작되면 돌아온다는 엄마의 말 때문에 아들은 지호는 매일 장마를 기다리고 있다. 아빠인 우진은 엄마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들을 위해 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어 우진과 지호는 기차역으로 갔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호는 끝없이 기다리다 한 여자의 실투엿을 발견하고 '엄마'라 외치며 달려갔고, 그 자리에는 정말 엄마 수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본격적인 내용은 시작된다.

이 영화는 일본 원작이기도 하고,

판타지적 요소가 있는 영화이다. 8년 전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요소가 판타지적 요소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지호가 학예회에서 자신의 꿈,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다. 장마가 끝나가는 것을 보며 엄마가 곧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호는 엄마가 자신에게 당부했던 말들을 하게 된다.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원작인 작품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면 곳곳에 일본의 분위기가 풍기기도 했다.

기억을 잃은 수아가 집에 와서 처음에는 지호와 우진에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날이 갈수록 집과 가족들에게 적응하고, 다시 우진과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 또한 매우 따뜻한 스토리인 것 같다. 잔잔하지만 스토리 구성은 탄탄해서 매우 재미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인생작'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원작에서 각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가슴 따뜻한 스토리와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소재는 눈물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소재에 또 노환을 더했다. 우진과 지호에게 짧지만 긴 기억이 되어버린 수아가 더 오래 동안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들기도 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짧은 만남이 관객을 더욱더 슬프게 하기는 충분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는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로맨스 영화이다. 누구도 보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다. 한 번쯤은 보는 것을 추천한다.

유미림 수습기자
mlryu48@gmail.com

방송 돌 보기 - 〈효리네 민박2〉- JTBC

■ 힐링은 제주도로!



'효리네 민박 2'는 JTBC에서 현재 방송 중인 예능이다. '효리네 민박'은 잔잔한 일상 예능으로 일명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고 있다. 제주도에 서 사는 연예인 집에서 시청자를 맞이 하여 민박집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예능으로 시즌 2를 맞은 만큼 그 인기가 사뭇 대단하다.

'효리네 민박'은 소복하게 쌓인 눈과 함께한 겨울을 지나 따뜻한 햇살과 봄꽃들이 가득한 제주의 봄을 입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효리 부부가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 식사와 포근한 잠자리가 제공되는 곳이며 다정하고 성실한 직원 윤아 가 반기는 곳이다. 색을 바꾼 또 다른 모습의 제주를 경험하는 시간 봄에는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지 궁금해진다. 이는 작품의 소개이다.

'효리네 민박'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직원이 누군지 맞추는 것이라 생각 한다. 시즌 1 때는 아이유, 그리고 시즌 2에는 소냐시대 윤아 가 직원으로 왔다. 또한 이번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생으로 박보검이 출연한다. 또 다른 출연자는 바로 반려동물인 순심이, 미미, 고실이, 모카이다. 귀여움을 담당하는 만큼 보는 사람도 미소를 짓게 된다.

이주원 수습기자
soo4793@gmail.com

동서대 맛집 제대로! 알차게!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이 애매한 계절, 중간고사가 끝나고 애매하게 쉬지도 못하고 교수님들의 과제는 끝이 없다. 끝내야할 과제도 많고 아직도 연이은 강의시간과 이에 따른 주어진 촉박한 점심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시간! 이 촉박한 시간 속에 무엇을 먹으러 어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을 뺏기는 동서대 학생들이 계신가요? 수많은 과제에 치이고 시험에 치이며 인간관계에 지친 대학생들, 밥이라도 맛있게 먹으며 지침을 달라고자 하는 동서대 학생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문사에서 그 해답을 드립니다! 짧은 거리에 굉장히 맛있는 거가다 가성비도 좋은 맛 집! 동서대 근처,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책임져줄 맛 집 함께 찾으러 가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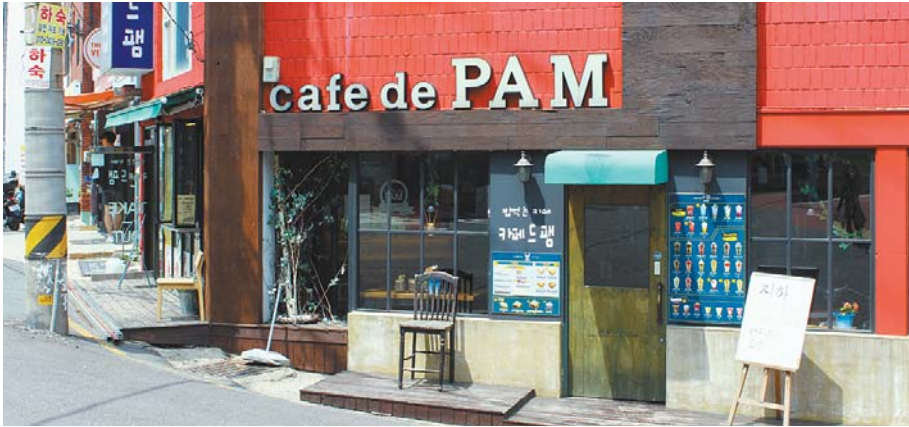
■비 오는 날 더 생각나는 닭 다구리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맛 집.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격 대비 최고의 맛이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누구나 좋아할 맛. 기사식당을 연상케 하는 편 안한 분위기이다. 제목에서처럼 특히 비 오는 날 이상하게 끌리는 맛 집. 오전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환상의 맛이다. 사골 맛을 베이스로 하는 음식이 대부분이다. 추천 메뉴는 닭죽이다.

▶사상구 가야대로 344번길 87
닭 다구리



■내려가기 귀찮을 땐 가성비강! 화반
점심시간만 되면 줄을 선다는 동서대의 맛 집. 고추장과 참기름을 입맛대로 넣을 수 있다. 흔한 비빔밥이지만, 밥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먹을 수 있는 송이버섯이 이 맛 집의 비결이지 않을까. 가격은 만 원대. 분위기는 깔끔하지만 시끌벅적하다. 화반 역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누구나 좋아할 맛이다. 추천 메뉴는 된장찌개+비빔밥. 외국인 친구들과 와도 좋을 듯하다.

▶사상구 주례로 76-1
화반



■밥과 음료 여기에 다 있다! 카페 드 펴
시험기간의 메카. 식사와 음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맛 집이다. 가격은 천차만별. 라면과 컵 밥 그리고 토스트를 판매하는 카페이다. 지하에도 많은 자리가 있고 화반과 마찬가지로 그리 멀지않은 곳에 위치해있다. 마을버스 6번 정거장 앞이라 앉아 있다가 마을버스를 타기에도 알맞다. 추천 메뉴는 아이언팬과 힐크이다.

▶사상구 가야대로 318번길 88
카페 드 펴



■치즈에 고기를 꼭! 김해 뽕구기 껌데기
과제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맛 집.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인당 약 칠천 원대에 푸짐하고 맛있는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라' 고기를 좋아한다면 고깃집을 그냥 지나치라. 특히나 이곳은 치즈와 송이버섯 그리고 특유의 양념장까지 나온다. 늦은 시각까지 과제를 하다가 허기가 진다면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는 곳이다. 가격은 만 원대. 단골손님이 많다. 추천 메뉴는 세트 C이다.

▶사상구 주례로 23
김해 뽕구기 껌데기



■너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자취생들의 숨겨진 맛 집이다. 골목골목 사이에 위치한 이 분식집은 새벽 2시까지도 열려있다. 시험기간 야식으로 동기들과 함께 별 하나 나 하나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2인분 같은 1인분의 양 그리고 분식집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손 큰 친절함까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격대는 이전 원에서 삼천 원대. 추천 메뉴는 떡볶이·순대·어묵이다.

▶사상구 주례로 28번길 4
별 하나 나 하나



■가로수 아니고 세로수 식당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찾아오는 그곳. 양파를 송송 썰어 고기와 어우르게 만든 맛 집이다. 시험이나 중요한 행사를 끝내고 친구들과 함께 소주 한 잔 하기 좋은 곳. 특히나 이베리고 목살을 한 입 배어 물면 또 먹고 싶어 만든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생각날 맛. 가격은 천차만별. 추천 메뉴는 이베리고 목살이다.

▶사상구 주례로 14
세로수 식당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불막창 골창
학교 근처 골창 하면 떠올라야하는 맛 집.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면 너무나 고소하고 쫄깃하다. 참숯으로 구운 덕분에 잡내가 없고 양념이 담백하게 배여있어 부담 없이 들어간다. 잡내때문에 골창을 먹지 못했다면 여기 불막창 골창에서 먹어보는 건 어떨까.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라고 합리화 시키고 싶은 맛 집.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사상구 남정로 105
불막창 골창



■두루치기의 정식 프락
기숙사·자취생이라면 꼭 한 번은 가서 먹어 보아야 한다. 프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푸짐함 이라고 표현 수 있다. 물이 가면 5000원 셋이 가면 3000원. 밥도둑은 다들 개장이라고들 하지만 프락의 두루치기 양념이 바로 또 다른 밥도둑이다. 또한 부추와 어우러진 두루치기와 그 양념을 한 입 먹고 나면 젓가락을 든 손이 자신도 모르게 다시 고기로 향해 있을 것이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사상구 주례로 27번길 13
프락

책 속의 풍경

우리는 왜 책을 읽는 걸까?



- 책 이름 :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 책 저자 : 나쓰카와 소스케
- 출판사 : arte

베스트셀러인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는 사쓰카와 소스케라는 작가의 주목받고 있는 책이다. 320만 부가 넘게 팔릴 만큼 인기 있는 책이다. 이 책 말고도 '신의 카르테 1', '신의 카르테 2'를 썼다. 책 소개로는 '책을 좋아하는 모든 이에게 묻는다. 책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돈 이야기는 그만두고 오늘 읽은 책 이야기기를 합시다. 이 세상의 책을 구하러 떠난 사람과 한 마리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적혀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곱씹어 보게 되는 그런 대사를 담고 있다. 차례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나쓰키 서점은 작은 고서점으로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서점이다. 나쓰키 서점의 주인이자 주인공인 나쓰키 린타로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고등학교인 린타로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답답하게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린타로는 학교에 가지 않고 서점을 지키던 중 말하는 일록 고양이와 만나게 된다. 이를 은 일록이 책을 좋아하는 린타로에게 미궁 속 책이 간혀있다고 도와달라고 한다. 미궁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궁을 탈출하고 책을 구하려면 사람이 말하는 진실 속의 조그마한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 밖에 없다. 첫 번째 미궁은 '책을 가두는 자'로 남성은 책을 한 번 읽고 난 뒤 책을 유리 안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운 후 두 번 다시 읽지 않는 행동을 취하였다. 린타로는 남성에게 '책에는 커다란 힘이 있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책의 힘이네 네 힘은 아니야'라고 충고를 하며 미궁을 탈출하게 된다. 그 후 두 번째 미궁은 '책을 자르는 자'로 여기서부터는 린타로와 같은 반 반장인 사요 가 고양이 가 하는 말을 들으며 합류하게 된다. '자르는 자'는 속독을 추구하며 책 읽을 시간

이 없는 현대인을 위해 책을 자르고 내용을 한 줄 또는 2분으로 압축했다. 이 남성은 라디오 카세트로 튠 베토벤의 노래에 맞추어 책을 자르고 말을 했다. 이것을 본 린타로는 남성이 좋아하는 라디오 카세트에 의해 틀어진 베토벤의 노래를 예시로 들며 '자르는 자'를 설득하고 거짓을 찾아냈다. 이후 사요는 린타로의 내면을 알게 되고 추천도서를 부탁하며 친구가 되는 모습을 그렸다. 세 번째 미궁은 '버리는 자'로 지금까지와 다른 어려움을 예고한다. 앞의 미궁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 미궁은 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예고하며 세 번째 미궁으로 들어간다. 이곳은 매출 1위 출판사로 팔리는 책을 출판하는 곳이다. 자극적이고 단순한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한 책을 팔고 있다. 이를 본 린타로는 대표에게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며 미궁을 빠져나온다. 이후 린타로는 3번의 미궁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은 일록 고양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미궁을 한 번 더 겪게 된다. 친구인 사요 가 마지막 미궁인 여성에게 끌려갔다. 린타로는 예전과 달리 고민 없이 바로 여성에게 갔다. 여성은 앞서 해결한 미궁 속 세 남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며 명성을 잃고 돈을 잃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녀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원했다. 이에 대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걸 가르쳐주는 게 책의 힘이

며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책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후 세 달의 시간이 흐르고 린타로는 자신감과 유유부단했던 태도를 바꾸었다.

이 소설은 일본이 배경으로 된 소설이라고 고양이, 고서점, 차 문화는 일본을 생각나게 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미궁은 현재 책을 잘 읽지 않거나 책을 함부로 대하고 책을 훼손하며 생각 없이 그냥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또 저자가 린타로에게 감정을 이입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에 나오는 대사와 말은 모두 주옥같아서 곱씹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문장 또한 한 줄 한 줄이 예쁘고 가슴에 새기면서 보게 되었다. 나쓰키 서점의 모습은 옛날만큼 모습을 보여주며 명성을 잃고 돈을 잃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녀는 이에 대한 이야기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주원 수습기자
soo4793@gmail.com

축제·공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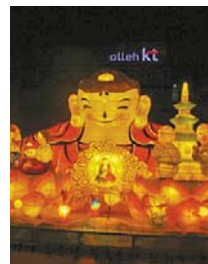
일루미아 빛축제

- 기간 : ~2018.12.31. (월)
- 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
- 주최 : ㈜유플에이전시



부산 연등축제

- 기간 : 2018.05.01(화)~2018.05.13(일)
- 장소 :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 주최 :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 공연예술축제

- 기간 : 2018.05.02(수)~2018.05.20(일)
- 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80
- 주최 : 동래문화회관



해운대 모래 축제

- 기간 : 2018.05.19(토)~2018.05.22(화)
- 장소 :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구남로 일대
- 주최 : 해운대구



‘가정의 달’엔 가족에게 양보하세요

가정의 달, 5월이 왔다. 어버이날을 시작으로 스승의 날까지, 빨간 카네이션에 마음을 담은 선물을 더하여 사랑과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한다. 비록 미세먼지 가득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벼운 옷차림, 울긋불긋 예쁘게 핀 꽃들, 눈부시게 빛나는 오후의 풍경이 낯설지 않은 봄이 되었다. 날씨 따라 기분도 들뜨고 어디로든 떠나버리고 싶게도 만드는 요즘, 산뜻한 바람을 느끼며 행복한 여유를 만끽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생각만 해도 얼굴에

는 어느새 미소가 지어진다. 마음 속 봄을 한껏 느끼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지금은 공부하고 대학가서 놀아!” 초·중·고등학교 시절, 누구나 예외 없이 부모님 혹은 선생님께 한변쯤은 들어본 말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마음 편히 놀 수만은 없다.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부할 시간마저 빠듯한 생활을 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5월만은 많은 시간을 내진 못하더라도 잠시나마 가족과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출처 : 갈매니저

아름다운 마음 나누는 봉사활동하기

아름다운 선행에 관련된 일화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대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해외의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다. 가족 모두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자. 자원봉사는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경우에만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한다. 진짜 자원봉사와 외려에 있는 자원봉사의 차이는 지속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성이라는 개념이 자원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중등, 고등, 대학교에서까지도 자원봉사를 의무 혹은 필수조건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속성은 지켜지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리 나오는 선행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우리는 이제 의무교육의 과정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고정된 문장으로 만들어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의 문장에 공감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좋은 마음 하나로 시작한 나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양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경험하는 일은 교육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가르침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 가족들과 봉사를 함께한다면 뿌듯함과 함께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야외로 나들이 계획 세워보기

5월은 따뜻한 햇살,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더해져 완벽한 나들이 날씨라고 할 수 있다. 김밥과 유부초밥 같은 도시락 혹은 간단한 간식거리를 챙겨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될 수 있다. 그것조차 힘들다면 치킨과 같은 배달음식도 좋다. 같은 음식이라도 색다른 장소에서 먹는 음식은 다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낯선 공간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집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분위기를 위해, 날씨에 취해 터놓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릴 적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을 부모님들과 보냈지만 성인이 되고 개인의 스케줄이 늘어나 지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조차 어렵다.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서운함에 대해 표현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반면, 내색조차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다. 그 이유는 그러한 서운함을 표하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조바심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들이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있다. 하지만 봄철 따뜻한 날씨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를 잊지 말자. 나들이 전 미세먼지 수치 확인은 필수적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경우 외출을 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마스크나 선글라스 같은 물품을 이용해 미세먼지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산뜻하고 깨끗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사진출처 : 건강나라



▷사진출처 : 네이버 포스트

가족과 함께 취미 활동 해보기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심지어는 유행과 문화조차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이다. 이런 시대에 바쁜 하루를 살아가며 취미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필독 도서와 체육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것을 핑계 삼아 자발적 의지이던 아니던 간에 우리는 책을 읽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졸업하고 더 이상 그런 강요가 없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독서를 하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덕분에 나이가 들수록 독서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운동부족 현상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취미활동을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취미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생각하면 운동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운동의 경우 서로 몸을 부딪치며 활동하기 때문에 대화가 부족했던 시간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운동을 한다는 공통점이 생겨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진다. 독서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마음의 양식이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색다른 취미를 함께 배워보는 것도 좋다. 배우면서 어려운 점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내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잡아보자.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보기

기억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에게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의도치 않게 잊어버리고 사는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있다. 그러나 사진을 어떻게? 잊어버렸던 과거들도 당시의 사진을 보게 되면 추억으로 떠오르고 사진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젊은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시간은 우리의 나이가 지속이 되어 흐른다고 말이다. 즉, 20살의 대학생은 시속 20km의 속력으로, 50세의 부모님은 시속 50km의 더 빠른 속력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다. 기억 속 부모님은 언제나 젊고 강하다. 하지만 내가 성장한 만큼 부모님의 시간도 빠른 속도로 흘러갔다. 과거와 비교해 현재를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음을 실감한다.
행복한 순간,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보자. 사진 속의 대상은 꾸미지 않아도 되고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사진기술이 전문적일 필요도 없다. 때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마의 기준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사진을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행복감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진을 남김으로써 또 하나의 추억이 쌓이고 사진을 보며 그때의 순간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 네이버포스트



선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보기

누구나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선물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이더라도, 비싼 가격의 물건이 아님에도 말이다. 그 이유는 선물 속에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에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 누군가에게 존경이나 사랑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날, 그 대상에게 꽃이나 선물을 전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었지만 그것이 당연시 되지는 않아야한다는 생각이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과, 존경,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을 의미 없이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그러한 기념일에 선물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물은 말로 전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비교적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물을 주는 대상이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형제, 자매간에도 선물을 전해보자. 평소 서로에게 선물을 줘본 경험이 없다면 더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선물을 고를 때는 많은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에 충분하면 된다. 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에 더 집중할 것이니 말이다. 여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하는 인사말을 담아 직접 쓴 편지까지 곁들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사진출처 : pixabay



마음의 짐 내려놓고 여행가기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가족과 여행을 가는 것은 함께하는 가장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다. 여행은 그 단어만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국내와 해외, 어디든 상관없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소중한 기억들이 생길 것이니 말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큰 힘을 발휘한다. 만약의 상황에서는 여행 도중 의견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단 하루이더라도 의미 있는 날처럼 느껴진다. 여행지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들으며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여행을 간 당신은 그 시간동안만이라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복한 시간 속에서 바라본 현실은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여행은 가족들끼리 더욱 가까워지고 예쁜 추억을 만들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도 좋은 역할을 한다. 여행을 끝난 후 다시 마주한 일상에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날씨와 휴일조차 완벽한 5월의 국내에서는 봄이 되면 추운 겨울 내 피지 못했던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여러 지역에서도 축제가 열린다. 여행과 축제 그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보자.

윤다는 기자
yoondaso73@gmail.com

▷사진출처 : DiGJAPAN!



● 준비소리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조금 복잡하지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날은 5월 5일인가요? 아니면 5월 8일인가요? 저는 여전히 5월이라고 하면 5월 5일 어린이날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저와 똑같이 어린이날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님 어버이날을 떠올리시나요? 5월만 되면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쓰기의 시작은 항상 강제적인 학교행사의 하나였지만 그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부모님의 향한 저의 감사한 마음은 어떤 한순간보다 진실했습니다. 편지의 반이 "사랑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 맘다에서 쓴 편지가 10통이 넘지만 정작 가져다 드린 것은 3통도 되지 않았습다. 아무래도 속스러운 때문이었겠죠. 그 속스러운만 이겨냈어도 부모님은 그 편지를 받는 그 순간 행복했을 것이고 더욱더 사랑으로 넘쳐나는 5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뽀뽀뽀' 송처럼 부모님을 향한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이 그 어떤 행동 보다 쉬웠던 같았는데 지금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지금, 바로 이 시간

김성현 (간호학과·1)

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한참 인터넷 광고나 유튜브 채널에 가족과 관련된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이 적힌 메시지들 보내 답장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자신이 직접 동영상상을 찍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동영상들의 공통점은 처음 시작은 속스러운음과 부끄러움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들 보내라는 미션을 받은 자식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동영상속 부모님들도 처음 몇 분간 굉장히 속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을 건너 문자를 보내고 나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답장이 보내올까라는 설렘이 속스러운보다는 커져있고, 동영상속 부모님을 본 당황스러운이 눈시울을 붉히는 감동으로 변해져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앞으로 더욱 행복하자고 직접 말로 표현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중학생 때는 사춘기 시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요즘 누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하나?", 부모님은 다 아시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넘겨 3년이

지났고, 고등학생 때는 수험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도 힘들다"라는 생각에 또 3년을 미웠던 지금은 훌쩍 커버려서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야" 점점 변명만 늘어놓은 채 그 침묵이라는 자리에 여전히 머 물러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어떤 의견을 서로 주고받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앉아있으면 그 궁금함에 우리는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그러면서 듣는 말에 대한 우리들의 답은 '그랬으면 말하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이 말이 과연 친구 사이에서만 쓰일까요?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지나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말과 '흘려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한순간의 속스러운 때문에 망설이다가 시간이 더욱 흘러 나중에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드릴걸'이란 후회보다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목회칼럼



유 의 신 교목실장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남이 뭐든지 다 해주는 대접받는 위치에 가면 성공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들어 간 사람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보호자가 있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상상해 보자. 일혀주고 먹여주고 씻어 주고 재워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태워주고 옮겨 주고 잃어주고 보여주고 공부해 주고 논문 써 주고 돈 벌여 주고 등 다 해준다면 나는 행복할까? 이 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요 로봇인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조적인 책임 있는 존재로 부모를 통하

성공이란?

여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다. 나는 내 생애를 살아야 할 소명을 받은 것이다. 생명(生命)이라는 말은 '살아라,'는 명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숨쉬는 일과 먹는 일과 배설하는 일과 잡자는 일과 생각하는 일 등은 자신이 하도록 디자인하여 주신 것이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여야 하는 것이다. 남을 복사하거나 흉내 내거나 남이 사는 것처럼 살 수는 있어도 내가 아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남들처럼 살면 그 사람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이다.

혹시 지금 대학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살아 주기를 망상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 할 것이다. 금(金)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과 부모의 무능함에 저항하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세상을 원망하는 청춘들은 아닌지...

사자성어 중에 자수성가(自手成家)라는 말이 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지신의 기업과 가문을 세운다는 말이다. 물론 아무도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생을 자신이 책임지며 사는 최소한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이라든지 보람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살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래도 살아 내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이 이룬 성공을 자기 것처럼 하여 살아선 안 된다. 부정확한 시험을 치르거나 논문이나 과제를 표절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불한당으로 자기꾼으로 살아가는 안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만화예술가인 앤드류 매튜스(Andrew Matthews)의 명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당장 편하게 하고 남의 손을 빌리면 성공의 기쁨도 영영 남의 것이 된다.'

그렇다 남의 손을 빌리면 우선은 쉽지만 결국 혼자 남게 되어 몇 배 힘든 인생 후반을 살 수밖에 없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행통하리라다."(시 128 : 1,2)라고 하신다.

이달의 명언

우리는 젊을 때에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 이해한다.

—바흐

인생은 집속 향한 여행이다.

—러먼 멜빅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삭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

사설

백 번이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 그대에게

철부지 열여덟, 그대의 품 안에서 세상이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다. '넌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라는 말에 나는 기대를 품은 눈으로 세상을 마주했다. 그때 그대는 나의 기둥이며 행복이며 편안함이었다.

스물넷이 되던 때 나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그대 머리칼은 하얗게 내려앉을 때 세상이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다. 여전히 그대는 '넌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말했다. 어쩌서인지 유난히 작은 목소리였다. 그때 그대는 나의 쓰라림, 걱정, 책임이었다.

부모님은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며 자식을 부양하고 울바라 키워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부모에게 내려준 아름다운 신비한 선물 그 이상이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수동의 형태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된다. 그 기간이 적게 20여년은 걸린다.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 올바른 인간이 되게끔 이끌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되고 난 후부터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할 그 울

타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인이 된 이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과제이다. 물론 캠퍼스생활을 제외한 전제이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부모님과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본인의 삶에서 선택과 추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지만, 가끔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선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에서 나오는 조언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강요와 압박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본인의 길을 걷지 않게 제 자식에게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늘 옳다고 믿는다. 이러한 갈등이 바로 동상이다.

부모님으로서 아이가 성인이 되고 이젠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곧 부모님의 품을 떠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 삶에 있어서 이 과정은, 너무 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여행은, 꼭 한 번 지나야 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행임을, 온 가족이 즐겨야 하는 여행임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막 스물, 이제 성인이 되고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함께 시간을 마주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대의 자식이다. 언제까지고 무한한 애정을 주고 용기를 주고 바른길을 알려 주어야 하는 무개가 있다.

시간이 지나 노모가 된 부모님이 70이 된 자식에게도 "길 갈 때 조심해라"라고 한다. 그 또한 부모의 무개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감히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무개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점점 작게 들리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인성은 높아지면서 그들의 목소리에의 정작 귀 기울이지 않는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조언하는 그 무개의 정도는 우리가 답변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스물넷이 되고 스물의 그때는 철부지였지만 지금의 우리는 온전한 어른임을 생각하는 우리는 당신의 자식이며 무한한 애정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 그대와 같이 여전히 점점 부모님의 책임 혹은 무개를

그들의 희끗한 머리칼에서 느낄 수 있었고, 자식에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며, 여전히 우리 마음의 지주이고 싶어 한다.

특히나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에서 비추어 볼 수 있다. 그대에게서 금전적 책임을 맡아낸다고 해서 그 모든 무개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으로서 우리에게 금전적 책임을 맡아내면, 가정에서 그대의 모습이 희미해진다고 생각하여 더욱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한다. 그들의 무개가 어떻게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제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 걱정, 한시라도 빨리 그 무개를 맡아드려야겠다나 생각이 든다. 그 무개가 백 퍼센트 이해되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책임이 그리고 그것을 느꼈다는 것 이다.

시간을 마주할수록 우리는 더욱 부모님의 무개를 그대들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대의 어릿한 자식이며 사랑이다. 겨우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대의 무개는 걸릴기식이겠지만, 갈등이 일어난다고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인성을 높여서는 안된

다. 점점 작게 들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다시 키워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부모님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말 한마디라도 더 대화하며 오래오래 곁에서 친구처럼 있어드리면 된다.

여태껏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이 스스로 삶을 우리에게 희생하며 늘 어깨에 짊어지시는데 다 컸다는 이유로 그들의 책임을 무시하며 어른임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의 나과 행복을 빼앗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추진은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된다. 우리가 부모님 울타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동상이품으로 인해 서로 갈등이 생길 때, 감히 부모님의 무개를 이해하려 하고 귀를 기울이면 충고가 아닌 조언으로 들리지 않을까. 여전히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대에게 백 번이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다.

이현희 기자
hyeonene@gmail.com

방개의 대학일기

가정의 달



방개는 물방개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물방개는 물에서도 헤엄칠 수 있고 날 수도 있는 곤충입니다. 우리 동서인도 어느 곳에서든 인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방개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가주



5월의 선물

김윤창 (영어학과·1)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켜던 봄빛이 지고 정신없이 몰아친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니 우리가 그동안 꿈 꿔왔던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달, 5월이 왔다. 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행사들에 참여하고 처음 해보는 형식의 공부와 처음부터 시작하는 인간관계에 신경 쓰다 보니 집에 신경을 쓰는 것이 자연스레 줄어들었는데, 참 마음 한편 이 쓸쓸해지는 일이다. 누군가 말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익숙함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잊고 살지?'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돌 지난 딸을 가진 사촌 형과의 통화에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망각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 막 마음이 된 사촌 형은 휴가 계획을 짰 때, 자신보다는 딸과 아내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대학교 들어와 약속이나 계획을 짰 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한 적 있느냐 되돌아보았다. 그 생각의 끝은 '아니다'였다. '부모님이 나와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보다는 술자리에 누가 오는지 생각하기가 먼저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달리는 말과 아침에 늦을 것 같다며 대쉬달라는 말이 우선이었다. 점심은 수업 때문에 학교에서 먹게 되지만 저녁은 충분히 집에서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밖에서,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더 중요시 여겼던 내 모습을 보며 나보다는 부모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1년 전 학교, 학원이라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는 성적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가족들에게 하는 대화보다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늘었고, 어느 순간 나 스스로 가족들을 무관심하게 보는 것을 느꼈다. 소중한 자식이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에 치여 사느라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괜히 말 걸었다는 아이가 싫어할까 봐, '공부 잘 돼가니?'라는 안부 자 물어본 말에 아이가 기분 상할까 봐, 나를 배려해 주시는 게 익숙했던 부모님이었다. '이제는 우리보다는 자기 친구들이 더 좋으니까', '우리보다는 친구들이 더 편하니까', '우리보다는 친구들이 더 이기기 잘 통하니까' 같은 생각들로 나에게 "집에서 밥 좀 먹어"라는 쉬운 한 마디도 말조차 힘들어하셨던

것 같다. 그분들 또한 앞서 말한 학교, 학원에서 받을 스트레스 때문에 말을 걸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내가 대학 들어 가면 그 스트레스가 덜 할 테고 그때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내가 대학을 가고 싶었던 것만큼 그분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 이유가 일시에 대한 압박이 아닌 그저 가족으로서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가족들의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5월은 휴일이 참 많다. 술 마시고 다음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날이 많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많겠다고 생각해보자.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맛있는 곳, 재미있는 좋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부모님과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영화로 하루를 보낸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의 돈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은 아마 그 모습에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도 슬며시 꺼내보면서 가족들과의 정을 나누는 것도 어쩌면 5월의 선물도 아닐까? 우리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진정한 5월의 선물은 바로 서로가 될 것이다.

동서만평

글·그림 최인아



■ 인터뷰1-기숙사생을 둔 학부모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



▶학부모 박숙희.



▶딸에게 선물 받은 애완견.

대학교를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두 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동서대학교 신문사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숙사생인 자녀를 둔 부모님을 만나 뵙고, 궁금한 점들을 여쭈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인 딸 하나, 대학교 1학년인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인 박숙희입니다. 현재 저와 아들, 남편 이렇게 3명은 포항에서 거주하고 있고 딸만 학교 때문에 꼭 떨어져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가장 보고 싶은 때는 언제인가요. 따님은 기숙사생이시던데요?

A. 맞아요. 딸은 지금 부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고 싶은 거야, 항상 보고 싶죠... 아들은 현재 집에서 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데, 딸이 항상 걱정이지요. 밥은 잘 챙겨먹고 다니는지... 예전에는 항상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하루 중에 가장 재밌었던 일, 화났던 일 같이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한참을 재잘재잘 곧잘 얘기해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식탁이 조용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한번은 저녁메뉴로 냉면을 샀었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냉면 면을 불도록 삶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독 팔만 꼭 익힌 면을 좋아했거든요. 밖에서 파는 것보다 제가 만들어준 쪽 삶은 냉면이 더 맛있으면서 맛있게 먹었던 딸애의 모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Q. 자녀분께서 집에 없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음, 집에 없어서 좋은 점은 딸다툼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인 듯해요. 딸과 엄마는 왜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투박투박 딸다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애뜻해서라도 그런 사소한 딸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아예 딸다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웃음) 사실 이런 딸다툼도 가끔은 그림자. 저와 딸이 둘 다 확 싸우고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없었던 일처럼 금방 화해하는 성격이거든요. 딸이 집에 없어서 나쁜 점은 딸습니다. 목욕탕을 가서도 서로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고 밤에 얼굴에 팩을 붙이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수 없죠. 같은 여자로서 또 친구로서의 딸이기에 아들, 남편과의 대화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Q. 자녀분께서는 집에 얼마나 자주 오는 편인가요?

A. 그래도 저학년 때는 주말에 자주 왔었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보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Q. 일주일 중 자녀분과 통화는 몇 번 정도 하나요?

A. 이틀에 한 번씩 하는 편이에요. 통화하면 밥은 잘 챙겨먹는지 물어보고 별 일은 없는지 서로 묻습니다. 요즘은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킬지에 대해 딸아이가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 강아지들은 제가 한참 힘들 때,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딸아이가 선물해준 아이들이예요. 덕분에 딸아이의 빈 공간을 크게 못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Q. 자녀분이 집에서 통학을 하는 것이

아닌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안전과 식사가 가장 걱정입니다.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딸을 타지에 보내 놓는다는 게 불안한 것 같아요. 식사도 걱정이지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게 항상 엉망이었거든요. 잘 챙겨먹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이 아이가 뭘 먹는지 알 수가 없고 제가 잘못 챙겨주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합니다.

Q. 마지막으로, 기숙사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한 마디 해주세요!

A. 처음은 걱정과 불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딸을 기숙사에 보내고 차를 타고 포항으로 올라오면서 울었거든요. 그냥 항상 집에서 보았던 딸을 타지에 두고 온다는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 처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녀들은 잘해낼 수 있다고 저 또한 그렇다고 믿어왔습니다. 처음 시간이 지나 각각의 일상에서 적응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처럼 다른 학부모님들 또한 자식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벌써 이만큼 잘 성장해줬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 일상이 바빠 부모님들을 잘 신경 쓰지 못하고 스스로만 생각만 할 때가 종종 있다. 인터뷰 질문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생각하면서 혼자만 생각했던 순간들을 반성하게 되고, 자녀지들은 제가 한참 힘들 때,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딸아이가 선물해준 아이들이예요. 덕분에 딸아이의 빈 공간을 크게 못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유미림 수습기자
mlryu48@gmail.com

■ 인터뷰2-타지의 기숙사 학생

가정의 달을 맞이한 글로벌 빌리지



▶기숙사생 신혜정.



▶가장 좋아하던 집밥 음식.

동서대학교 신문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에 주거 중인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글로벌 빌리지’는 동서대학교 재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로 학교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기숙사생이 말하는 글로벌 빌리지의 생활과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글로벌 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신혜정입니다.

Q. 기숙사에 지내고 있으면 밥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A. 처음에는 밥을 기숙사 근처 도시락을 사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는데, 밖에서 사 먹는 것이 아무래도 질리기도 하고 매일 사 먹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숙사에 밥을 신청해서 먹고 있습니다.

Q.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있나요?

A. 대부분 기숙사에서 같은 학부나 전공인 사람을 한 방으로 붙여주곤 해서 거의 다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불편함은 딱히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같이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Q. 기숙사에 살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일이 있었나요?

A. 기숙사에 친구들과 함께 살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학과였던 룸메이트가 집에 갔다가 기숙사 생활품인 휴지를 들고 왔는데 알고 보니 키친타월이어서 친구와 배 아프게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경주에 큰 지진이 났을 때, 부산에까지 여진이 왔

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지진을 느껴 깜짝 놀라 밖으로 대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기숙사생들이 7층 로비인 밖으로 나와 한참을 불안해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살면서 많은 동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창문 틈 사이로 초코파이를 둔 적이 있었는데 까마귀가 파닥이며 그 초코파이를 물어간 사건도 있었으며, 기숙사 비상계단에서 작은 아기 참새를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Q. 기숙사에 살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숙사에 살면 아무래도 지리적인 장점으로 오전 수업을 갈 때 10분 전, 더하면 5분 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통학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좋은 점 같습니다. 또 같은 룸메이트와 재밌는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지적인 생활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숙사 지하 내부에는 사우나 시설과 헬스, 요가, 수영 등 각종 복지 시설이 존재합니다. 교내 학생이라면 학생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Q. 우리 학교 기숙사를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나요?

A. 기숙사 출입 카드를 깜빡하고 방에 두고 나왔을 때, 사감실로 내려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카드를 받아 문을 연 후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Q. 기숙사생으로서 학교에서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가끔 기숙사 생활을 관리하시는 사

감 선생님이나 관련인 분들이 노크도 없이 문을 갑작스럽게 여는 경우가 있어 당황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Q. 기숙사에 살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이 있을까요?

A. 여러 가지 기본 기숙사 생활품 외에 개인적으로는 빨래 건조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의 빨래방에 건조기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만 급할 때가 아니라면 빨래를 항상 건조대에 걸어 말리는 것이 더 빨리 말릴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A. 항상 보고 싶지만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집 밥이 그리울 때나 아빠의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라는 안부 전화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특히 타지로 와서 아플 때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기숙사 생활에 대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타지에서 적응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글로벌 빌리지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내 집처럼 편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숙사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숙사는 좋은 점 분명 많다. 그러나 타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부모님이 보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기숙사를 신청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동서대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사랑들에게 응원하길 바란다.

이주원 수습기자
soo4783@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바나바



▷사진출처 : 굿뉴스 가톨릭 갤러리

그 결과 큰 무리가 주를 믿게 되었다(행 11:19-24)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 요셉의 별명이다(행 4:36). 사도행전 13:15에는 분명히 권면한다는(파라클레시스) 뜻이 있다. 바나바는 그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의 수호성인이다. 가톨릭교회와 정교회는 6월 11을 성 바나바 축일로 정했다. 바나바는 초기에 그리스도교에 개종하여 자기의 소유지를 팔아 그 값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쳐 가난한 형제들의 구제 자금으로 하였다(행 4:36). '바나바'는 그의 설교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했던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서 역할을 했으며 사도로 일컬어졌다(행 14:14). 마가 요한 의 숙부이기도 하다(골 4:10).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며(행 11:24) 구제와 말씀 전파에 열정적이었던(행 11:26-3) 바나바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바울을 발굴하여 이방인 전도자로 일선에 내세웠다는 사실이다(행 9:26-27). 전에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사울(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임을 믿지 않았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가를 자세히 이야기하여 그를 변호함으로써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 주는 한편, 그는 사울의 시종을 들고 그의 불안을 덜어 소개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행 9:26,27). 바나바는 사도행전 11:24에 '착한 사람'이라 되어 있고, 또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였다고 했으니, 그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본래 그 성품에 따라 아량이 넓은 자였으며, 영적으로도 담대한 은혜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는 본래부터 착한 사람인데다가 영적 은사까지 충만했으니 만큼, 그의 목회하는 임지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은 정한 이치이다. 즉,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의 큰 역할을 볼 수 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몇 사람의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유대인도 포함)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 돕게 하자, 그가 가서 그 교회의 은혜를 알아보아 인정하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즉 주와 동

거하라고 권면하였다. 그 결과 큰 무리가 주를 믿게 되었다(행 11:19-24). 그리고 그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위대한 사울을 등용하기를 기뻐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이 받은 영적 은혜를 참된 것이라고 식별한 명견(明見)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안디옥에서 일 년 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행 11:25,26). 구브로 섬 살라미스에 있는 바나바의 무덤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제연보를 가지고 바나바는 사울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행 11:27-30). 예루살렘에서 구제사업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다. 이것은 안디옥에서 출발된 바나바와 마울의 제1차 전도여행에 요한 마가와 동행하게 되었던 가능성을 알게 하여 준다(행 12:25,행 13:13).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 또는 교사라 일컬음을 받은 인물 중에 바나바가 들어있다. 바나바와 사울이 주를 섬겨 금식기도 할 때에,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외국 선교 사업)을 하라고 따로 세움을 받았다(행 13:1-3). 루스드

라에서 바울은 나면서 앓은병이 된 자를 고쳤다. 그 곳 주민들은 그들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 왔다고 생각하여 바나바를 그들의 최고신인 '쑰스', 바울을 '하메'라고 하면서 쑰스 신단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와서 제사를 하려고 하던 사건이 일어났다(행 13:3-14:28). 이들은 구원문제를 놓고 유대주의자들과 다투었다.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대표자로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총회의 성질을 띤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선교에서 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하였다(행 15:1-3,12). 이 회의에서는(사도, 장로, 그리고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이방교회에 보낼 대표자를 택했다. 격론 끝에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구브로로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전도하였다(행 15:35-41,골 4:10). 이들이 서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주 안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다.

김다경 수습기자
noijk4@gmail.com

DSU 동서대 신문기자협회

cyWORLD

동서대신문사 ▼

| 수습기자 모집 일정 |

- 일반기자(대학단신, 기획/특집, 글로벌, 취업, 문화)
- 동서대신문사에 관심있는 동서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교내 각 식당 및 동서대신문사 내 원서배부
- 지원 : 5월 8일~6월 15일까지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면접 : 개별 연락드립니다. - 동서대신문사
- 문의 : Tel) 320-2141(산학협력관 5609)
010-3331-8399(편집국장)

6월 15일 수습기자모집

당신의 열정이
크ampus를 만듭니다

Made in DSU Press